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10월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양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륝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리러 조선인민군 륝군, 해군, 항공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본사기자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 평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는 뜻깊은 10월 10일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여러 종목의 결승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체육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정력적인 령도로 체육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평안남도팀과 남포시팀사이의 여자배구결승경기가 진행되였다.

여자배구결승경기는 평안남도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어 민족체육 및 오락경기들이 있었다.

씨름경기에서는 평안북도팀이 1등을

하였다.

공안고 머리우에 이고 달리기경기에서는 황해남도팀이, 이어달리기경기에서는 남포시팀이 우승하였다.

이날 바줄당기기결승경기는 장내를 들었다놓으며 도대항체육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기세를 울리며 승부를 겨룬 두 팀간의 경기에서는 평안북도팀이 이겼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수들이 사기충천하여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칠 때마다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경기에 이어 전국도대항체육경기 종합 순위가 발표되고 시상식이 있었다.

종합순위 1등은 평안남도, 2등은 황해남도, 3등은 남포시, 4등은 함경북도, 5등은 황해북도, 6등은 강원도, 7등은 함경남도, 8등은 자강도, 9등은 량강도, 10등은 평안북도가 하였다.

도대항체육경기가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면서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

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체육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도대항체육경기를 정례화하고 민족체육에 힘을 넣어 누구나 건강한 체력으로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68돐 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가 10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격정을 터치는 관람자들속에서 구봉령의 김성녀를 비롯

한 녀성공로자들을 알아보시고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중창 《조국찬가》, 기악과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녀성독창 《나의 길》, 경음악 《내 삶이 꽃피는 곳》, 녀성독창과 방창 《조국과 나》, 현악4중주 《10월입니다》, 녀성6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녀성독창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관현악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등의 종목들이 울랐다.

대대로 수령복, 당복이 꽃피는 이 땅우에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화원을 펼쳐주고 온 나라 인민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을 구가한 경음악과 노래연곡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여》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이 부르는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녀성중창과 합창 《사회주의 지키세》는 회세의 천출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신심넘쳐 사회주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역센 기상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든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총정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선군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보여주는 공연은 혼성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우리의 기치》, 종곡 《조선로동당 만세》로 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또다시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세차게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

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흠잡을데 없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혁명적인 예술단체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 부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관람할수 있게 10월 17일까지 공연을 계속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